





#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원산구두공장에서

##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복받은 주인공들

당의 하늘같은 사랑에 떠받들리워  
내놓고 자랑만 한 우리 나라 신발  
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원  
산구두공장!

온 나라가 다 아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월 경에 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보시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지금 이들로부터는 무엇이 불가능하다  
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배짱  
을 암고 『에봉산』 상표를 단 각종  
화, 다양화, 디자인화, 경량화된 구두를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  
한 치밀한 둘러직전을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  
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  
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삼  
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  
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  
니다.』

지난 1월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안팎으로 흉잡을래에 없는 만족짜리  
공장으로 전변된 원산구두공장을  
돌아보시며 일군과 인민들에게  
안겨줄 신발생산정형을 알아보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약속을 지켜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문없이 이들의 일터  
를 또다시 찾았습니다.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실 시각을 그  
려며, 매월 공장앞에 달려진 신발생  
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며 증  
산의 동음을 새차게 울리고있던 공  
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무한한 경정

에 휩싸였다.

연혁소개실과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  
양실에 드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악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공장에 찾아오시여  
아로새기신 애국현신의 자우자욕을  
다시금 감회깊이 떠나보시였다.

이민위원회!

이 좌우명을 심장깊이 새겨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고한 사랑을 철만년세월  
이 흐른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이들이 벌리는 생산돌격전, 그것은  
당파 수령의 명도업적을 길이 빛내  
이는 길이였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해 오신 인민의 웃  
수소리를 지키는 길이였다.

인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  
의 그날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사출작업반에 드러시여서는 손수  
구두장을 드시고 그 질에 대하여 구  
체적으로 알아보시였고 가죽의 질도  
아래보시며 인민들의 기호와 미  
감, 세질과 신령심리적 특성은 물론  
계절에 따른 신발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때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찾자리  
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상업망에 자주 나가 『에봉  
산』 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알  
리보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2. 8미달로련한기업소와 정성합  
성가죽공장에서 나오는 염화비닐과  
파성가죽으로 생산하고있는 구두를

한걸레 한걸레 보아주시며 우리의 것을  
가지고 모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기  
쁘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의 것은,

목숨과 같은

우리의 자존심이었다.

현지지도의 그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구두의 형태도 다양하고 매파

있을뿐만 아니라 가볍다고 하시면서

신발생산의 디종화, 다양화, 디자인화,

경량화를 실현하고 결고성을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판찰에서도 성파

를 달성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도안실에 드러시여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번 공장을 돌아온

때 신발공장에서 선행공정인 도안을

잘하는데 각별한 주목을 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는데 도안실을 잘 꾸  
리고 여러 가지 신발형태들을 도안하  
여 생애에 받아들이고 있다며 말씀하  
시였다. 순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은 북분치는 결정을 누르지 못하였  
다. 공장의 그 어더를 들아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어  
려워있는데 오늘은 또다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가에게 그토록 값비싼  
평가를 안겨주시니 사랑이면 이

보다 더 큰 사랑, 밀음이면 이보다

더 큰 밀음이 어디에 있더라.

신발도안현상과 접을 실속있게 벌  
리고 제품품질회복을 정상적으로 엄격  
히 할때 대한 문제, 제화공정에 새로  
운 선진기술을 받아들일때 대한 문

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  
단히 높이어 신발생산과 관련한 주  
제를 해결하는데 잘 알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  
에에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략  
직과업을 받아안으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  
는 모든 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자각을 다시 한번 깊이 간직  
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이  
특한 성과에 민족하지 않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  
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 일

방에 꽂 맞는 구두를 만들어 주기 위  
한 자료로 된다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각각 한 발모형과 관련한 자료  
기지가 계속 구축, 정신원으로써  
구두생산에서의 산적적인 평균기  
준값을 얻을수 있다. 이렇게 얻어  
진 평균기준값을 구두설계에 도입  
하면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하고 기  
호와 체질에 맞는 제품을 생산보장  
할수 있다.

공장에서는 지금 이 발축정장치  
를 이용하여 주문사를 활용해 벌  
리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구두  
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이 대단  
하다. 구두의 형태나 색깔까지 주문  
자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공장에서는  
이미 생산한 많은 견본들을 어느  
한 장소에 전시하여 놓고 이를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와 비슷한  
맞는 형태와 색깔의 구두를 그르드  
도록 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  
들이 김정일애국주체임을 실장  
깊이 간직하고 제품마다에 열  
렬한 애국의 마음과 정성을 기  
울인다면 일마든지 질 좋은 생  
산물과 건설물을 만들어낼수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 개발도입한 발축정  
장치를 놓고보자.

사람들의 발모양은 천재만상이다.  
그런 것만큼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값 즉 하나의 형태로 짚어  
면 같은 구두들이 인민들의 수  
요를 모두 충족시킬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장에서는 구두에 대한 인민들의  
각각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  
키기 위해 발축정장치를 자체의  
힘으로 개발, 제작,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빌의 길이, 너비, 높이,  
둘레 등의 기준값들을 수동적으로  
측정하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들이  
만든 발축정장치에 척 올라서기만  
하면 즉시에 모든 자료를 큐브터화  
면에 나타나며 모든 기준값들이 분  
석 종합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기

윤금 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현장에서 만난 직장장 진성호  
동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조선녀, 김향미, 최희, 리금수  
등 공장 기술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어 힘들게 일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고생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힘에  
동감하고 함께 고생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는 것은 모  
든 것이 세계최고의 수준이어야 한  
다는 당의 요구를 실천으로 꽂고  
우리 당이 바라는 높이에 『에봉산』  
상표를 단 구두를 더 흥미롭게 만  
들어놓 불리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터를 다녀가신 후 종업원들의  
열의는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저기를 좀 보십시오.』

간 돌아보는 사이에 만은 신발  
들이 완성되어 하나하나 포장되고  
있다. 그의 말에

# 선군혁명력사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빛나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  
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돐

##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과 항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98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4일 수도 평양과 각지  
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주체의 진군  
사, 위대한 태양조선의 역사와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여 있다.

당창건기념탑, 평양역, 평양

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조선의 행운》의  
경배한 노래선율이 울려퍼지자  
경축무도회가 시작되었다.

무도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최하신 선군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군사강국, 당당한  
한 혁보유국으로 전면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송고  
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아름다운 춤바다를 펼쳐  
였다.

《인민의 나라》, 《당을 따라 벌  
처럼 나도 살리》 등의 노래선율  
에 맞추어 춤을 걸을 일으켜나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통창  
적인 선군령도로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만방에 펼쳐주시고 한

만대의 번영을  
위한 억년기록을  
마련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웠다.

황일의 너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워 혁명의 수뇌부를 한복  
속에서 경사옹위하는 선령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선봉에서 열혈청춘의 삶을  
끌없이 빛내여갈 드높은 기개가

무도회장들에 나타났다.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  
대, 병동대로서의 슬기와 용  
맹을 남김없이 파시해놓은 청년  
학생들의 의지의 분출인 듯

죽어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펼쳐주신  
천출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심이 어려웠다.

참가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이신 황일의 너성영웅

죽어

김정숙동지의 탄생 98돐을  
맞이한 크나큰 걱정을 암고  
모여온 너선들이 설레이였다.

《장군님께 영광을》,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평도자의

죽어

죽어</

# 수령결사용위의 참된 집단—서해의 9명 용사들

기상수문국 서해 해양연구소 해양관측선 《고—연—950》호 선원들과 해양연구사들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혁명신념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이 마음속에 확고히 굳어진 사상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조국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을 영생의 언덕에 자랑스럽게 세웠는가. 수령결사용위의 길에서 한물이 그대로 유틴이 되고 성세가 되었던 가마포의 영웅부선장과 활남당의 폭발물처리대원들, 삼주당의 당시군들, 청년동맹일군과 인민보안원, 위기일발의 순간에 동지를 위해 목숨을 서슴 없이 바친 광부…

출

해양관측선 《고—연—950》호는 조선서해의 해양상태를 조사관측하는 전문해양과학연구 선박이다.

우리가 날마다 들키는 날씨에 보에도 이 선박과 함께 충정의 항로를 헤쳐온 이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뜨겁게 짓들어 있다.

지난 12월 1일 950호가 귀항을 앞둔 며칠전이었다.

작전앞바다에서 해양관측을 하고 있던 950호는 온천군 석리앞바다에서 관측중인 선박 《고—연—9 9 3》호가 보내는 통신을 받게 되었다.

압축공기부족으로 기관시동이 불가능하니 방조를 달라는 것이었다.

9 5 0 0 0는 지체없이 맞을을 떴다.

9 5 0 0 0호는 온천군 석리앞바다에서 해양관측을 하기 위해 며칠전에 떠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 시간에 걸친 간신히 9 9 3 호의 발동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파도에 9 9 3 호가 허공 끝에 떴다. 콩하고 떨어졌다. 이번에는 밀들이 끊어지면서 그곳으로 물풀기가 쓸어들었다.

9 5 0 0 0호에 송신하고 있던 선박 부원은 일시침통무는 대회기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9 9 3 호에 신속히 대피구역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고—연—9 9 3》호와 《고—연—9 5 0 0 0》호 사이에는 이런 전화가 오갔다.

『모두 무사하오?』

『예, 도착하였습니다.』

『다행이요. 여긴 지금 물루기로』

그날은 지난 12월 2일 새벽이었다.

오늘 우리는 수령결사용위의 한 집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다.

이것이 《고—연—9 5 0 0》호의 마지막소식이었다.

그 이후로는 통신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후 온천군 군성 앞바다기슭에서 김영진, 차길남, 리철진 등 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리영철, 고광일, 전학철 등 무들의 시신도 차례로 나왔다.

김영진, 차길남 등 무들은 서해의 값높은 위훈을 세기였다. 나이도 성격도 생활경위도 서로 다른 그들이 한낱 한시에 밟혀한 영웅적위훈은 인생의 값높은 영광인 수령결사용위의 첫걸음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밀뿌리인 집단주의가 어떤 인간들을 키우는가에 대해 깊이 새겨주고 있다.

김

『고—연—9 9 3』호의 항해 일정에는 당시 파도의 높이는 3~4m, 바람속도는 13~18%라고 기록되어 있다.

풍랑속에서 압축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배들이 블랙홀 때마다 공기호스가 뿐만 아니라 바다물속에 빠져버렸고 차길길이 날뛰는 파도때문에 그것을 다시 떠나기 조련치 않았다.

관측실장 김영진동무의 안해 김현희동무는 어느 여름날에 있었던 판례에 대해 이렇게 추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갔다. 그들은 당시 말거운 초소에서 수령결사용위의 값높은 생을 빛내인 참원인간들이었다.

해상경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였고 9 9 3 호가 보내온 표표가 수심이 낮아 큰 배들은 기동이 몹시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위험을 맞았거나갔다.

그들은 당시 말거운 초소에서 수령결사용위의 값높은 생을 빛내인 참원인간들이었다.

우리의 주인공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도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온 기관장, 차길남, 리철진 등 무들의 시신들은 《고—연—9 5 0 0 0》호에서 가장 젊은 30대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오래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남편과 함께 해수욕을 가기도 계획한 날이었다. 언제부터 남편을 한번 보기 달라고 조련된 그의 동무들도 같이 가지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론세계에 불일이 있다며 집을 나온 김영진동무는 좀처럼 주어들이 복에 들통히 걸려있었다.

하는 수없이 동무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갔던 그는 그곳에서 판례설비가 든색 날은 배당을 맥제로 판례에 여념이 없는 남편을 보게 되었다. 김현희동무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김영진동무는 서운한 감을 감추지 못해 하는 안해에

하고 있소. 밀창에 파구가 생긴 것 같소.』

이것이 《고—연—9 5 0 0 0》호의 마지막소식이었다.

그 이후로는 통신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3일 후 온천군 군성 앞바다기슭에서 김영진, 차길남, 리철진 등 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리영철, 고광일, 전학철 등 무들의 시신도 차례로 나왔다.

김영진, 차길남 등 무들은 서해의

값높은 위훈을 세기였다. 나이도

성격도 생활경위도 서로 다른

그들이 한낱 한시에 밟혀한 영웅

적위훈은 인생의 값높은 영광인

수령결사용위의 첫걸음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밀뿌

리인 집단주의가 어떤 인간들을

키우는가에 대해 깊이 새겨주고

있다.

그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초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잘 띠지 않고 하는 일은 코지 않지만 자들이 일어난 하나하나의 수자와 자료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성스러운 사업과 잊달이였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판측선은 곧 군함과 같았다.

첫 해양판측을 시작한 그날

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

까지 출항일수를 무조건 보장

했으며 그 기간에 4 0 0 0 만건에

달하는 사람들은 값높은 위훈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당시 말거운 초소에서

수령결사용위의 첫걸음이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시

# 새 전쟁 도발의 원흉 미국을 고발한다

## 2015년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상보

2015년의 조선반도정세는 역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 정책,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난 세기 50년대와 같은 또 한차례의 조선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올해야말로 평화와 안정문제를 두고 새기를 이으며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전이 최정점을 이룬 한해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유례없이 청에 하였던 조선반도정세를 통하여 누가 파악이 땅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며 누가 진정 그 수호자인가를 역사에 전하기 위하여 이 상보를 냈다.

\* \*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며 자세이다.

더우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그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온초에 강성국가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면서 긴장격화를 막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제안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반도강경회의 주범인 미국에 대조선적시정책에 배달리지 않고 대담하게 전쟁전학을 요구하는 한편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할 당사자의 하나인 남조선당국에는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헤어나가기 위해 긴장문화와 평화적환경마련의 길로 발길을 돌릴것을 호소하였다.

지난 1월 9일에는 미국의 립장까지 고려하여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험시중지하는 경우 우리도 미군이 우리에게 핵시험을 험시중지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고 미군과 언제든지 미국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립장도 표명하였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평화의 새 전기를 마련하려는 호소는 온 민족과 세계의 적극적인 후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에 대응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과 그 시행파장을 역사에 짐ут루루한 것으로서 려여 미국의 대조선정책들중에서도 가장 적대적이고 악랄무도한것이었다.

『경락적인』의 간판밑에 대조선정책을 마치 장기성을 띠는 문제, 크게 판식하지 않는 문제로 여론화된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은 그 외외파는 정부대로 비로 올해에 수단과 방법을 통일하여 우리 공화국을 무조건 압살하자는것이었다.

1월 22일 미 국대통령 오비마가 직급 나서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 험들다못해

하루라도 빨리 『봉미』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베포하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극악무도한 적대시 정책, 전쟁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난 세기 50년대와 같은 또 한차례의 조선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올해야말로 평화와 안정문제를 두고 새기를 이으며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전이 최정점을 이룬 한해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유례없이 청에 하였던 조선반도정세를 통하여 누가 파악이 땅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며 누가 진정 그 수호자인가를 역사에 전하기 위하여 이 상보를 냈다.

\* \* \*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며 자세이다.

더우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그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그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온초에 강성국가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면서 긴장격화를 막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적제안들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반도강경회의 주범인 미국에 대조선적시정책에 배달리지 않고 대담하게 전쟁전학을 제기하고자 하는 한편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할 당사자의 하나인 남조선당국에는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헤어나가기 위해 긴장문화와 평화적환경마련의 길로 발길을 돌릴것을 호소하였다.

최악의 정부위기와 경제위기속에서도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한 대조선도모기자판과 단체들이 계속 자금을 퍼붓는 가운데 1월 19일 『인권재단』의 탈을 쓴 미국의 보략군들이 남조선에 기여려는 『탈북자』를 쓰며 기사를 함께 험시중지하는 경우를 중대한 하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명』방식이 올해 대조선안설실현에서도 중대수단의 하

나입을 공포연히 선포하였다.

언론에 오바마가 직접 『북조선을 인터넷으로 통한 정보류일』으로 반드시 봄피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므로 『색갈혁